

배구

10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스카이워커스 유소년 배구교실' 소속 선수들이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실제 코트 경험을 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배구 꿈나무들을 위해 V리그 경기 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천안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떨지 마! 평소처럼만 하자” 꿈나무들의 뜻깊었던 60분

현대캐피탈 유스, V리그 경기 전 체험

“떨지 마! 평소처럼!”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2018~2019 도드람 V-리그' 남자부 5라운드 첫 경기를 앞둔 27일 오후 천안 유관순체육관. 경기 개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구단 및 방송 관계자들 몇몇의 발걸음만 있게 마련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9명씩 짝지는 18명의 초등학생들이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은 채 코트에 나섰다. 잠시만 몸을 뽀는 이들은 이내 9인조 배구 경기를 펼쳤다.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의 맞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일찌감치 입장한 관중들도 처음에는 이들을 의아한 눈초리로 지켜봤지만 이내 휴대전화로 코트를 촬영하는 이들과 나란히 나왔다.

이들 초등학생들은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스카이워커스 유소년 배구교실' 소속 선수들이었다. 지난 1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유소년클럽 배구대회' 초대 우승을 차지한 이들에게 현대캐피탈이 실제 코트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남자부 7개 구단 전체는 현재 유소년 클럽을 운영 중이다. 현대캐피탈 역시 2017년부터 연고지 천안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구 열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경민을 비롯한 6명의 코치들이 토요일 4개반, 일요일 5개반 등 초교생 180명을 지도 중이다. 엘리트 교육이 아닌, 취미 차원으로 시작된 교육이지만 이미 배구 선수의 길로 접어든 어린이도 있을 정도다.

보조구장에서 훈련용 코트만 받았던 초교생들에게는 문성민, 전광인 등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누비는 코트에서 실전을 치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다. 하경민 코치가 꼽은 우승 주역 황서빈(13·천안 환서중)은 "유관순체육관 코트에 서니 진짜 선수가 된 기분"이라며 "언젠가 프로가 되어 전광인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하경민 코치는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다. 많이 부럽다"며 "프로의 길을 걷고 싶은 이들에게는 인근 중학교 연습생으로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고 있다. 선수들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우리카드, V리그 5R 첫경기 현대캐피탈 3-0 완파



우리카드 주포 아가메즈(오른쪽)가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도드람 V리그' 현대캐피탈과의 5라운드 맞대결에서 상대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천안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젊은 '우리'에게 봄배구의 향기가...

(우리카드)

가장 젊은 우리카드 후반기 체력 최강 선두 현대캐피탈 꺾고 단독 2위 올라



2008년 창단 이후 첫 봄 배구, 소위 '장춘의 불'이라는 목표는 여전하다. 하지만 1차적 목표인, 내심 봄 배구 이상의 성적을 욕심낼 단계까지 올라왔다. 젊음이라는 무기를 앞세운 우리카드가 V리그 남자부 선두 싸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우리카드는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21 25-22 25-20)으로 승리했다. 최근 4연승을 달린 우리카드

(승점 50)는 대한항공(승점 48)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반면 5연승을 질주하던 선두 현대캐피탈(승점 51)은 올스타 휴식기 이후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했다.

선두 현대캐피탈은 우리카드~대한항공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경기수를 맞추고 승점 3을 추가한다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카드의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장에서 '6라운드 최종전까지 선두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찬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카드의 가장 큰 무기는 젊음이다. 특히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나경복(25)과 한성정(23)의 조합은 7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다. V리그 전반적으로 레프트

에서도 유독 돋보인다. 여기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아가메즈, 윤봉우 등이 승부처마다 힘을 보태고 있다. 톱니바퀴가 잘 맞는 날에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한다.

물론 젊음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 시즌 초 개막 4연패를 당하며 '다크호스'라는 예측도 빛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매번 4승2패를 기록했다. 신영철 감독은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승부처에서 조급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 엄려한다. 하지만 한번 분위기를 타면 그 한계를 가능하게 힘들다. 지금 우리카드는 그 상승곡선에 제대로 올라 탄 분위기다.

2위에 올랐지만 목표는 여전히 봄 배구다. 4위 삼성화재와 승점 11 차이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다소 '쉬운 목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세트 노재욱의 기복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 아가메즈의 컨디션이 4라운드를 기점으로 다소 하락세라는 점도 변수다.

이제 선두 자리가 눈앞이지만 신영철 감독은 선수들에게 거듭 '평정심'을 강조한다. 젊음으로 무장했지만 벤치에서는 평정을 강조한다. 자칫 들뜨기 쉬운 선수단을 거듭 진정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영철 감독도 "나라고 왜 욕심이 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선수들의 젊은 패기와 사령탑의 관록이 빛어내는 조화. 어쩌면 바로 이 균형이 우리카드의 가장 큰 무기다. 천안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토종들이 일어섰다... '외인 몰빵배구'는 가라!

스토리발리볼

'외인 공격점유율' 남 35% 여 30% 올시즌, 역대 4번째로 낮은 점유율 외국인선수 부상 잦은 이유도 한몫

봄 배구를 앞두고 종착점을 향하고 있는 2018~2019시즌 V리그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인다. 차츰 커지는 토종선수들의 역할이다. 그동안 외국인선수의 활약이 우승의 큰 변수였고 대부분 사령탑도 그것을 기대해왔던 V리그였지만 이제는 토종선수들의 역할분담이 점차 승패에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를 잡는 추세다. 이번시즌 남녀 외국인선수의 공격점유율(1월18일 4라운드 종료시점 기준)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변화의 흐름은 확실하다.

남녀 13개 구단의 외국인선수는 각각 35.16%와 30.62%의 평균 공격점유율을 기록했다. 남녀 모두 2014~2015시즌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점유율이 역대급에 근접하는 수치로 떨어졌다. 2014~2015시즌 남자는 44.13%, 여자는 47.45%의 역대 최고의 평균 공격점유율을 기록했다.

팀의 에이스에게 공격을 몰아주는 분업화배구를 낫춰서 표현하는 몰빵배구는 2014~2015시즌을 정점으로 차츰 사라지고 있다. 여자부는 지나치게 과도한 외국인선수의 몸값과 공격의존을 줄이려고 시도한 트라이아웃제도 도입 이후 점유율에



홍국생명 이재영 도로공사 박정아

서 변화가 나타났다. 2015~2016시즌부터 공격점유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시즌은 30.62%로 급격히 낮아졌다.

2018~2019시즌 여자부는 외국인선수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6~2007시즌(22.09%)과 2007~2008시즌(19.10%), 2010~2011시즌(27.22%)에 이어 역대 4번째로 공격점유율이 낮은 시즌이다. 그만큼 토종 선수들의 역할이 커졌다. 또 도로공사 이바나, KGC인삼공사 알레나의 부상, 중도 퇴출된 현대건설 베키의 부진 등이 통계수치에 영향을 줬다.

이밖에 홍국생명~GS칼텍스~도로공사는 각각 이재영~이소영~박정아 등 때로는 외국인선수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토종선수 덕분에 외국인선수 의존도를 많이

떨어트렸다. IBK기업은행도 김희진이 있지만 공격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들블로커여서인지 어나이의 공격부담(44.51%)이 다른 팀의 외국인선수보다 눈에 띄게 높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자부 모든 팀들이 외국인선수에 의존하는 배구에서 벗어나 토종선수들과의 결합 혹은 토종들만의 다양한 공격을 통해 점수를 만드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남자는 자유계약제도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5~2016시즌부터 공격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새로 사령탑에 올랐던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이 업템포 배구를 시도한 시기와 일치한다. 높이 대신 스피드에 방점을 둔 다양한 형태의 싱크로나이즈 공격(일명 스피드배구)은 다른 팀에게도 영향을 줬다.

2016~2017시즌부터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된 외국인선수들이 이전까지의 특급선수들에 비해 높이와 파괴력이 떨어지자 토종선수들이 점차 경쟁력을 갖춰가며 새로운 득점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변화는 현대캐피탈에서 시작해 지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물론 KB손해보험의 알렉스의 부상 결장, 한국전력 아킴의 부진과 조기퇴출 이후 외국인선수 없이 토종으로만 시즌을 꾸려나가는 점도 공격점유율 수치를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못한 만큼 토종선수의 역할증가가 변화를 만들어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해결사' 이재영 23득점 홍국생명, 현대건설에 셋아웃 승

여자부 1위 홍국생명엔 '버티는 힘'이 있다. 토종 에이스 이재영(23)의 존재감 덕분이다.

이재영은 2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의 5라운드 맞대결서 23점을 책임져 팀의 세트스코어 3-0(25-20 25-20 25-21) 승리에 앞장섰다. 이재영은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은 물론 최고 공격성공률(56.75%)을 기록했다. 승점 3을 추가한 홍국생명(46점)은 2위 GS칼텍스(승점 40)와의 격차를 벌렸다. 최하위 현대건설은 3연승이 마감됐다. 높이에서 철저히 상대를 제압했다. 1세트부터 마야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9-9로 맞선 상황에서 김세영과 이재영이 차례로 마야의 백어택을 차단했다. 이어 이재영의 연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낸 홍국생명은 12-9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이재영과 톱시야로 이뤄진 좌우쌍포가 터진 홍국생명은 1세트에 만 블로킹 7개로 현대건설을 제압했다.

2세트에는 이재영이 해결사의 면모를 톡톡히 발휘했다. 초반 0-4로 끌려갔지만, 금세 격차를 좁혔다. 15-15의 동점 상황에서 신인 센터 이주아와 이재영의 호흡이 빛났다. 이주아가 유호 블로킹으로 공격 기회를 살리면 이재영이 득점으로 이어냈다. 이재영이 16~18집계를 모두 책임졌고, 이주아와 톱시야의 블로킹이 이어져 20-17로 달아났다. 세트의 마지막 점은 김세영의 블로킹으로 만들어졌다. 홍국생명은 3세트 역시 현대건설과 접전을 거듭했지만, 이재영(8점)~톱시야(6점)의 공격력을 앞세워 25-21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인천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